

성가소비녀회 (聖家小婢女會)
LITTLE SERVANTS OF THE HOLY FAMILY
www.holyfamily.or.kr

2018년 12월 25일
제7호

강생의 길을 따라

Along the way of the Incarnation



02721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로9길 46
46, Gireum-ro 9-gil, Seongbuk-gu, Seoul, Korea
Tel 02)940-5800
Fax 02)943-1603

www.holyfamily.or.kr



주님을 뵙기 위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곳에 하느님이 계시고 그곳에서 하느님께서
하시하고자 하는 일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재덕 신부 제1집 18쪽)

To meet the Lord we must go closer to the poor.
There, you will find God and the work that
he wants you to do.

- | | |
|---|--------------|
| 04 아, 성가소비녀회도 선교지에 공동체가 한두 개 있다면,
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 총장 이 프리스카 수녀 |
| 07 선교 지역 소개 : 중국 | 편집부 |
| 14 '새 출발' '새 생명' '새로움'으로의 이끄심 | 권 벨리나 수녀 |
| 18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십니까?(시편 8,5) | 성 데레사 수녀 |
| 23 당신이 아파하는 그곳에... | 위에 하비에르 수녀 |
| 26 하느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여정 | 이 폴 수녀 |
| 30 아르민다와 과달루페 성모님 | 김 로사리아 수녀 |
| 34 길 위에서 시작하고, 그 길을 돌아오는 것으로 | 정 호영베드로 수녀 |
| 40 온전히 내어드리는 순간 | 이 그레이스 수녀 |
| 45 선교사의 가방 | 이 크리스틴 수녀 |
| 49 밖으로 나가는 교회 | 차 클레멘스 수녀 |
| 53 후원 | |
| 54 해외 선교 지역 | |

2018년 제7호

「강생의 길을 따라」 선교지는 성가소비녀회 설립일에 연간 1회 발행하며,
모든 이들과 함께 선교 체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발행처 성가소비녀회 02721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로9길 46

발행인 이 프리스카 수녀

발행일 2018년 12월 25일

홈페이지 www.holyfamily.or.kr

표지사진 빠리나케 시에서 지어준 하우징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아, 성가소비녀회도 선교지에 공동체가 한두 개 있다면, 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 설립자 신부님의 전교주일 강론에서(1977년)

총장 이 프리스카 수녀



설립자 신부님의 이 바램이 36년 전 1982년에 씨앗이 되어, 2018년은 전 회원이 모여 해외 선교 36주년을 기억하는 축제를 열었다. 무엇보다도 해외 선교에 파견된 수녀님들이 함께 모여 가졌던 공적 사적 모임들이 좋았다. 거리상 남미 지구에서 소수의 수녀님만이 참석할 수밖에 없었지만 준비 과정에 참여하는 수녀님들의 열기는 대단하였다. 아마도 그 과정 또한 의미가 컸으리라 생각된다.

16차 총회에서 위임된 업무인 해외 선교에 대한 점검의 일환으로 2017년에 해외 파견 선교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다. 수도생활의 전 영역에 걸친 질문을 파견된 선교지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물었다. 이미 선교를 종료한 모든 수녀님들을 대상으로 포함한 설문이었지만 특별히 현재 해외에 파견한 수녀님들의 응답을 보면 선교에 대한 인식과 의식, 그리고 수도공동체의 영성을 살려는 의지는 뛰어나게 돋보였다. 2018년 현지를 방문하여 이 설문 내용으로 지구별 연수를 하면서 다시 내면화하는 작업을 거쳤고, 2019년에는 월피정을 통하여 다시 심화하기로 하였다. 이는 현장에서 살고 있는 수녀님들의 지속적인 작업을 통해 영적 재화로 끌어올려지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산이 되리라 생각한다.

2018년 9월에는 해외 교포 사목 36주년, 아르헨티나 원주민 사목 26주년, 중국 사목 20주년을 기억하는 축제를 준비하면서 누구보다도 해외에서 귀국한 선교 수녀님들의 활기가 충원을 가득 채우며 좋은 에너지를 나누어 주었다. 수녀님들 자신 역시 축제를 준비하며 간간히 나누는 대화에서, 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너무나 쉽게 이해되는 어려움들에서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해외 선교 수녀님들이 한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얼마나 큰 힘을 서로가 주고받는지 체험하는 시간들이었다.

설문조사의 응답을 통하여 파악한 수녀님들의 의식과 열의, 어려움들을 작년 12월에 캄보디아 공동체를 방문하고, 올해 볼리비아와 아르헨티나 공동체들을 방문하면서 확인하고 느끼는 시간들이 되었다. 많은 어려움들에도 불구하고 선교 사로서 어떻게 나날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고민하는 모습들을 역력히 볼 수 있었다.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파견된 나라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환경과 상황

들을 파악하고 이해하려는 노력들을 포기하지 않으며 배우려는 자세로 임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활동이 설립자의 정신과 파견된 목적에 따라 더 가난한 사람들, 더 절박한 사람들에게로 향하고 있는가 하는 성찰과 노력들을 쉬지 않고 있었다. 공동체에서 맞닥뜨리는 갈등과 어려움을 또한 만만치 않음을 볼 수 있었다. 그럼에도 그 어려움이 한 개인이나 공동체를 통하여 전해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나름 기도하면서 극복하는 모습들도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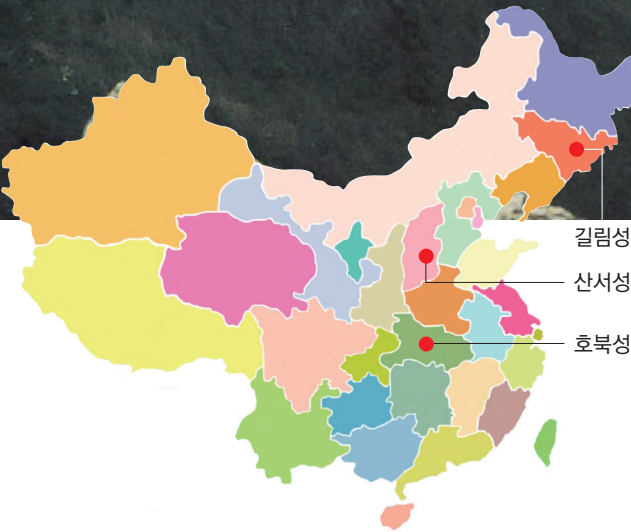
각 개인이 갖고 있는 고유함과 독특함, 그리고 그 사람의 한계에서 기인하는 갈등과 어려움들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것은 해외에서 산다는 것의 선물일 수 있다. 그것들을 피하거나 무시하거나 대충 넘어가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 해외에 파견된 공동체 삶의 어려움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그런 위기가 바로 선물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직면하려는 용기와 관대함이라는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기운에 힘입어야 위기를 호기로 변형하고 성장하는 선물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모든 서원자의 사도적 활동은 하느님의 초대에 대한 자발적인 응답이다. 해외에 선교사로 파견된다는 것은 이 초대에 더 적극적으로 응답한 것이지 않을까? 서원자의 사도적 활동이 주어진 소임만을 뜻하지 않고 수도자 신분이라는 존재 자체와 수도회로부터 파견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공동체의 증거 사명 또한 같은 비중으로 주어진 것이다. 해외에 파견된 선교사로서 증거의 삶은 곧 공동체의 증거로 이어지는 특성이 해외에서는 더욱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다. 그래서 공동체 삶이 어려울 때 더욱 큰 부담과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닐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가소비녀로서 수도공동체로부터 파견되었다는 의식, 공동 사명의식인 것 같다. 그래서 중요한 힘의 원천이 개인의 역량에 따른 성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파견된 공동체로부터 받은 사명에 대한 확신과 격려와 지지에 있다고 본다. 그래서 더욱 중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수도 공동체를 대표하는 총원과의 소통이고 그 원활한 소통을 통해 든든한 수도공동체가 지지해 주고 있다는 확인이지 않을까? 선교사인 설립자 신부님께서도 무엇보다도 가난한 이들 안에 강생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보여주라고 강조하셨고, 또한 공동체로서 증거하라고 요청하셨음을 늘 기억하는 그곳에 강생하신 성삼위 하느님 현존을 생명의 원천으로 삼지 않을까요?



중국
China



공식 명칭 : 중화인민공화국
 위치 : 아시아 동부
 수도 : 베이징
 인구 : 13억 7354만 1278명(2016년)
 언어 : 중국어
 종교 : 불교, 도교, 기독교, 회교
 정체 · 의회형태 : 인민공화국(입헌공화제), 인민대표대회제도(일원제)



중국의 정식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이다. 중화(中华), 구주(九州), 화하(华夏)라고도 하고 수도는 베이징이다. 유라시아 대륙의 동남부에 위치하며 중국의 국토는 러시아, 캐나다에 이어 세계 제3위이고 고원, 사막과 넓은 들, 평야, 호수, 강 등 지형이 매우 다양하다. 위도의 차이가 커서 지역에 따라 기후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인구는 대부분 한족이고, 몽골, 회, 장, 묘, 조선족 등 55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소수민족은 전체 인구의 약 7%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의 면적은 전체 면적의 약 50~60%로 대부분 변경지역이다.

현대의 과학기술로 만들기도 매우 어려운 기적인 중국의 4대 불가사의는 1)진나라 병마용(秦陵兵马俑): 세계 8위의 기적으로 불린다. 2)중국 장성(长城): 중국 고대 외적을 막기 위한 군사방어 공사이다. 3)두장옌(都江堰): 전 세계 지금까지로, 연대가 가장 오래되고 유일하게 보존되어 줄곧 사용되고 있는 거대 수리 공사이다. 진나라 이빙 부자가 건축한 것으로, 지금으로부터 이미 2000여 년의 역사가 된다. 4)경항 다운하(京杭大运河): 세계에서 가장 긴 거리이며, 공사가 가장 컸던 고대 운하로 전장이 1797km에 이르렀다.

중국의 국장은 국기, 천안문, 톈니바퀴와 이삭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인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의 재체인 중국 명절은 민간에서 전승하는 기념일, 경축일, 중국에서 승인된 국제 통용 명절 등으로 선달그믐, 설날, 청명절, 단오절, 추석, 국경일 등이 그것들이다.

언어는 표준어, 방언, 소수민족 언어이며 공식 표준어는 북경어를 중심으로 구성된 한어 혹은 보통화로 부른다. 넓은 지역만큼이나 다양한 방언들이 존재하는데 이는 중국 인구 90% 이상이 사용하는 한족의 지방언어를 뜻한다. 한족을 제외한 55개 소수민족이 사용하는 언어는 방언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자는 한자(漢字)로, 1956년 이후 중국에서는 일부 한자를 간소화시킨 간체자(简体字)를 정자(正字)로 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종교는 토속 신앙과 불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도교를 주로 믿지만 법적으로 종교 활동이



허용되지 않는다. 국민의 종교 신앙의 자유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다. 중국 헌법 제36조 규정에 의하면, 종교 신앙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 권리로서, 어떤 국가 기관, 사회단체, 개인도 국민의 신앙 혹은 불신앙을 강제할 수 없고, 종교를 신앙하는 국민과 신앙하지 않는 국민을 차별 대우할 수 없다. 또한 국가는 정상적인 종교 신앙을 보호해야 하며, 어느 누구도 종교를 이용하여 사회 질서의 파괴와 국민 신체·건강의 위해 및 국가 교육제도의 방해 등 활동을 행할 수 없다. 종교 단체와 종교 업무는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천주교는 7세기부터 중국에 전래되어 1840년 아편전쟁 이후 대규모로 전파되었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비단과 종이와 아름다운 도자기들은 무척 품질이 좋고 아름다워서 주변 국가들에서 인기가 높다. 이러한 인기는 점점 아시아를 넘어 서아시아와 유럽에까지 퍼져 나갔으며 많은 상인들이 중국과 교역하기 위해 기나긴 길을 찾아 나세게 되는데 바로 실크로드가 시작된 것이다. 중국인의 용문화는 대단하여 비약과 약동 준귀를



강조하는데 행사나 생활에서 용은 중국인에 필수적 동반자이다. 신비와 역량이 전설적 용의 특징으로 일종의 문화 부호인데 용의 형상은 이상적 생존 상태로 뿔은 사직과 장수를 매를 잡고 있는 발은 용맹을 꼬리는 번성을 상징한다.



한·중과의 관계는 1949년에 중화민국과 수교하였으나 중화민국(대만)이 국공 내전에 패배하면서 대한민국의 대중국 외교는 타이완 일원으로 제한되었다. 1980년대 말에 중화인민공화국은 기존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외교뿐만 아니라 우리와도 자유롭게 상호 방문을 허락하여 학술, 언론, 특히 이산가족 교류가 가능해졌으며 그 결과로 1992년 8월부터 중화민국과 단교하고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하게 되었다.

〈성가소비녀회의 중국 선교〉

중국의 23(타이완 포함)개의 성(省) 가운데 우리 수도회가 파견된 곳은 호북성의 형주 상록촌, 산서성의 분양 수녀원 그리고 길림성 연변의 연길 호스병원에서 각각 소임하고 있습니다.

형주 상록촌

2002년도에 파견된 형주 상록촌은 형주 시내에서 약 30km 떨어진 팔령산에 위치하여 공기가 맑고 주위에 나무가 많은 아름다운 자연 속에 살고 있으며, 나환우 50여 명과 소비녀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장애를 많이 가지고 있는 환우들의 손과 발이 되어 주고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하계 나누며 하느님의 자비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분양 수녀원

수도회 분원 설립 준비기간을 거쳐 2014년 파견되었으며 현재는 공동체 회원이 중국 소비녀로만 구성된 분양은 본당을 비롯한 여러 모임이나 환자들을 위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류촌 공소에서 지내고 있으며 성가소비녀회의 도움으로 3년 전 새로운 성당이 세워졌는데 넓고 밝은 성당은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좋은 분위기와 조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일 미사에는 인근 지역에서 60~70명의 신자들이 주일미사에 참석하는데 많은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조금씩 하느님께 나아가는 신자들의 모습에서 기쁨과 행복을 느낍니다.



연변 연길호스피스 병원

2018년도에 파견 받아 중국에 상황에 맞추어 환자와 그들의 보호자들과도 소통하고(지역을 고려하여 통역 또는 번역이 필요합니다.) 환자들이 마지막 순간을 평안하게 맞이할 때까지 심리적, 영적 지지를 주기도 하며 사랑과 관심으로 그들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원목 사도직처럼 전문적인 선교 활동을 할 수는 없지만 하느님 사랑의 마음을 지닌 봉사자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환자 가족들의 슬픈 마음도 함께 해주고 있으며 필요할 때는 가정방문도 합니다.





01

01 류촌 주일학교 아이들

‘새 출발’ ‘새 생명’ ‘새로움’으로의 이끄심

중국 분양
권 벨리나 수녀

2005년 9월 수녀원에 입회한 후, 2013년 중국 분양에서 실습 겸 10개월을 지낸 것을 제외하면 한국에서 1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작년 12월 신학교 공부를 마치고 새로운 소임지인 중국으로 되돌아가는 시점에서 한국의 생활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열흘간 주어진 소중한 시간을 보내며 ‘새 출발’ ‘새 생명’ ‘새로움’으로 계속해서 저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새로운 이끄심을 이곳에서 어떻게 체험하며 응답하고 있나요?
올해 3월, 8년간 사랑으로 품어준 총원 공동체를 떠나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중국은 저에게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곳입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 중국에 대한 생각과 인식도 새롭게 요구되고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끄심은 날마다 새 생명으로 부르시는 그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은 10개월간 살았던 지역이라 익숙하고 많은 신자들도 낯이 익어서 비교적 편하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미사 후에도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 안부를 묻고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공동체에 도착한지 며칠 지나 바로 성지주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곳에서 처음 정식으로 수난 복음을 읽는 것이라며 저에게 해설을 부탁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부르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흔쾌히 받아들였고 내년에는 신자들의 몫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봅니다.

류촌 성당에서는 조화로 꽃꽂이를 하는데 태어나 처음 해보는 것이지만 그동안 수녀원에서 간접적으로 본 것이 있기에 겁없이 흉내를 내면서 꽃아 봅니다. 생각보다 마음에 듭니다. 마리아숨파 수녀와 서로 격려해주고 칭찬도 아끼지 않고 무엇



02 마리아숨파 수녀와 함께 꽃꽂이

보다 스스로 만족하면서 기쁘게 봉헌하고 있습니다. 꽃꽂이를 하면서 “아! 어쩌면 인생은 흉내는 것이 아닐까?”라는 깨달음을 얻기도 하면서 이미 훌륭한 모델을 찾아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생각하곤 합니다.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창세기’ 성경 공부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7~8명의 신자들이 매주 월요일마다 모여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함께 읽고 나눔을 합니다. 서로 다른 신앙 체험에서 나오는 나눔이기에 얼마나 신비롭고 풍요로운지요? 모임을 통해서 조금씩 하느님을 알아가고, 조금씩 성경에 맛 들이고, 성경 읽기에 익숙해가는 신자들의 모습에서 작은 기쁨을 얻습니다.

5월부터 ‘성가주일학교’의 이름으로 주일 학교를 시작했는데 류촌 성당은 토요일 오후에 마리아숨파 수녀가 맡고, 저는 시내 주교좌성당인 분양 성당에서 주일미사



03 대학생 모임
04 류춘 성당 주일미사
05 중학생 성소 캠프



전 1시간 20분 정도 교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주일학교 교재 자료를 제공받아서 아이들이 이해하고 알아듣기 쉬운 여러 방법을 통한 교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들이 많은 것을 알고 기억하는 것보다 신앙생활의 분위기에 익숙해지고 온몸으로 느끼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곤 합니다. 다만 올해 중국 정부의 19차 인민대회가 있는 후부터 많은 성당이 주일학교 활동에 대한 제지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는 걱정 속에서 지난 7월 중순에 마리아숨파 수녀와 함께 중학생 대상의 성소 캠프에 초대되어 성가소비녀회를 소개하고 프로그램을 주도하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수도회의 영성, 역사, 사도직, 공동생활에 대한 소개와 동영상을 보여주었는데 활기 있는 수녀님들의 모습이 신기한지 많은 친구들이 관심과 호감을 보이곤 하였습니다. 또한 유희 방식으로 '기뻐하라 소비녀'의 정신을 친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 친구들에게 성소의 꿈을 키우는데 작은

씨앗이 되어 주님 사랑 안에서 싹트고 열매 맺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그에 맞는 지혜와 방법을 주신다는 사실에 명확해진 시간이었습니다.

신앙교육은 주로 아이들의 방학을 이용합니다. 8월 15일 성모승천 대축일 오후부터 시작하여 1주일간 여름 신앙 교리반을 운영하였는데 70여 명의 아이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성당에서 숙식하면서 지냈습니다. 기도의 분위기를 익히고, 교리교육을 배울 뿐만 아니라 공동생활을 통해서 함께 살아가고 타인을 배려하는 좋은 습성도 배우게 됩니다. 몇 명의 대학생들이 봉사해주기도 했지만 책임자의 위치에서 무사히 마치고 나니 큰 산을 하나 넘은 기분입니다. 아이들에게도 더없이 좋고 행복한 시간이었으리라 믿으면서 저에게도 주님을 위하여 뭔가를 할 때

예수님의 '새로운' 이끄심이 이렇게 평범한 일상 속에서 저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저는 그냥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것이었음을 작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제가 어떤 대단하고 큰일을 하기보다는 작은 일상에 깨어있으면서 당신께 가까이하기를 진심으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가 참으로 좋다는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갖게 해준 수도회와 모든 수녀님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수녀님들의 기도와 사랑의 힘으로 소비녀의 정신을 이 큰 중국 땅에서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성장시키는 또 다른 이야기들은 다음 기회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합니다.

06 여름신앙교리반을 마치고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십니까? (시편 8,5)

중국 연변 호스피스 병원
성 데레사 수녀



입회하고 나서 거의 7년 가까이 한국에서 살다가 첫 소임으로 다시 중국에 돌아왔습니다. 다른 수녀님들이 해외로 나가는 선교라면 저는 조국인 중국에서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 책임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왔지만 익숙한 음식과 문화와 언어 등 여러 가지의 편리한 요소가 많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4월 중순에 뜨거운 하느님의 사랑과 같은 열정과 기쁨 가득 찬 마음으로 길림성 연길에 있는 호스피스 병원에 왔습니다. 이렇게 중국에서의 예수님 강생의 길을 따라 선교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중국에서 살았지만 처음으로 연변에 오게 된 것입니다. 연변은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약자이며 중국 동북쪽에 있는 길림성 동쪽에 있습니다. 연길은 제일 중심 도시로 조선족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지역이고 중국어와 조선어를 합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에 외국인 선교활동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병원은 종교적 차원이 아니라 한국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와 중국 정부의 합작으로 2005년도에 설립되었으며 동북쪽 지역에 있는 유일한 호스피스 전문 병원입니다.

2층 건물로 1층은 치매환자 대상의 효강 병동이며 2층은 호스피스 병동입니다. 현재 6개월 정도 병원에 봉사하면서 지역사회나 교회의 상태 등 여러 가지를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곳에 개신교 교회는 많지만 가톨릭 성당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이 직접 선교는 할 수 없기에 본당 수녀는 연길성분도 수녀회(한국에서는 부산 올리베타노)의 중국 수녀들이 담당하고 복지원 노인시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어 환경과 지리적 위치가 좋아서 많은 조선족 사람들이 이곳에서 직업을 얻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외국이나 큰 도시로 많이 가서 연길 시골에는 노인들과 아이들이 남아있는데 한국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파괴된 가정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물가가 많



01 그림 그리기

이 비싸졌다고 하며 심지어 ‘작은 한국’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예전에 한국 선교사들이 사업을 목적으로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연변 호스피스 병원과 한국 살레시오회가 운영하는 연길국제합작기술 학교가 있는데 두 곳 모두 비영리 시설입니다. 사랑의 시튼 수녀들의 지체장애 센



02 아버지의 날 행사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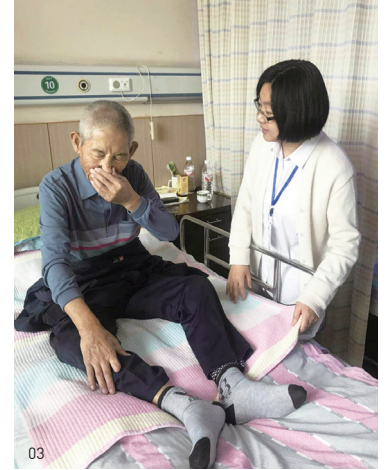
터도 있으며 주변 도시 훈춘에는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소속 중국 수녀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모두 다 보이는 데 보이지 않은 자리에서 봉사하고 있는 수도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병원에서 하는 일은 원목 사도직으로 입원한 환자 중에 종교를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서 한국처럼 종교 예식이나 드려내고 기도는 할 수 없습니다. 주로 환자와 가족과 동반하는 것입니다. 병실에서 들어가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도 간호사도 아니기 때문에 환자나 보호자들은 저의 존재에 대한 궁금증으로 물어보곤 합니다. 심리상담사나 자원봉사자라고 혹은 병원관리자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복음 중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구절을 떠올리면서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환자에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를 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환자와 가족을 동반해 주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형성되면 가톨릭 수녀라고 알려줍니다. 봉사하면서 환자들에게 되어 주고 싶은 그 역할이 아니라 단지 환자와 가족을 동반하려는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0여 곳 이상의 가정을 만났는데 대부분의 환자들이 서로 다른 고통이 있으며 죽음 앞에서는 참으로 가난하고 미소한 존재라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이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게 됩니다.

8월에 선종한 모 바오로 할아버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를 제외한 할머니와 자녀들이 모두 신자였는데 할아버지는 입원하고 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암세포가 뼈까지 전이되어 옷을 만지지 못할 정도로 고통을 호소했는데 입원하여 통증이 조절되면서 가족들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병실에 갈 때마다 처음부터 당신을 싫어하지 않고 손을 잡았다는 사실을 방문할 때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특별하게 인식하지 못했는데 할아버지에게는 저의 행동이 큰 위로가 되었음을 생각하면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입원 후 50일이 지나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요즈음 30대 초반의 환자가 2명 입원하고 있는데 정말 어떤 말로 위로해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아픕니다. 그들을 만날 때마다 그냥 말없이 있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울지도 못하는 어머니들의 심정이 얼마나 힘든지 상상하기도 못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성모님이 겪으신 고통을 묵상하게 되는데 십자가 아래 계신 성모님의 마음을 느껴보려고 합니다. 때로는 무력감도 많이 느끼고 어



03 모 바오로 할아버지

떤 효과도 보이지 않지만 하느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그들과 함께 하고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합니다.

대부분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절망적이고 죽음을 맞이하러 온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사실 생명의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잘 마무리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못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지내면서 차츰 환자와 가족들의 의식이 바뀌게 됩니다. 우선 환자들의 통증을 최대한 조절해 주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줌으로써 환자가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여유가 생기고 자기 인생을 정리하여 가족들과 화해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다 완벽하게 할 수 없지만 환자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도 남아있는 가족이 후회하거나 슬픔에 빠지기보다는 죽음을 받아들이고 다시 생활에서 희망을 찾는 모습을 보면서 “참생명으로 향하는 길



04 의사, 간호사가 주도하는 환자 보호자들과의 모임
05 연길 성당

을가는 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강생의 길을 떠나는 것은 바로 생명으로 향하는 길을 떠나는 것이 아닐는지요?

날마다 반복하는 규칙적인 일상생활의 모든 상황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퇴근하고 돌아와 혼자 있는 시간이 힘들 때도 있었지만 아주 소중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마치 엘리야가 하느님을 만나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주님께서는 크고 강한 바람 안에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 안에 안 계시었다. 불이 지난간 뒤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 안에 주님이 계시었다.”라는 말씀처럼 하느님께서 어디에나 다 계시는데 침묵하지 않은 상태라서 하느님을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밤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는 바로 하느님께서 지진이나 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아마도 하느님과 만나는 기쁨은 바로 지금까지 날마다 봉사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생활을 뒤 돌아보면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와 특히 연변지역에서 하느님의 사랑이 겨자씨와 누룩처럼 퍼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시편 8장 5절에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십니까?”라는 말씀으로 하느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아파하는 그곳에...

중국 분양
위에 하비에르 수녀

분양 본당 선교팀원들과 함께 의료 봉사

이 지역에는 신자가 많이 없으며 주일 미사에 나오는 신자는 대략 60명이다. 많은 신자들이 류춘 마을에서 10km 정도 떨어진 마을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한마을에 신자가 한 집뿐인 경우도 많다. 한 50대 초반인 지매님과 노부부 신자가 있는 마을에서 선교하고 싶은 열망으로 분양 성당의 선교 팀원들과 함께 이발과 의료봉사 그리고 노인 방문을 함께 하였다. 의료봉사를 하다 보면 찾아오는 환자 중에 특히 피부병 환자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 전에 형주 병원에서 공부했던 지식들이 많은 도움이 되어 치료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직접 환자의 집을 방문하여 봉사도 하는데 파견 받은 소비녀의 사명감과 보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다.

임종을 앞둔 환자 방문

간암에 걸려 임종을 앞둔 환자가 있었는데 신자도 아니고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



01 분양 본당 선교팀원들과 함께 의료 봉사



02 임종을 앞둔 환자 방문
03, 04 환자방문 중 전기기계와 부항 치료



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본당 신자들과 함께 기도해주고, 남은 시간을 정리하고 반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우리 신앙의 가르침인 죽음, 천당과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 그는 예수님과 성모님 많은 성인들이 천당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를 듣더니 자신도 그곳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 후부터 마음이 편안해지고 두려움을 떨쳐버린 모습이었으며 3일 후에 하늘나라로 가셨다.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자 가족들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줌으로써 그렇게 하느님을 만나게 되고, 선종의 은총을 얻을 수 있었다.

환자방문 중 전기기계와 부항 치료

부항단지가 없어 유리병과 플라스틱 약 병을 이용하였다. 이 자매는 류촌에서 20km 정도 떨어진 마을에 살고 있는데 이곳에는 신자가 한 집밖에 없다. 어느 날 허리가 너무 아파서 몸을 움직이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고통과 외로움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바로 느꼈고 벨리나 수녀님과 함께 바로 차를 타고 방문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허리디스크로 진단이 나와 큰 병원에서 수술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안면 신경 마비 환자 전기기계 치료

류촌에서 8km 떨어진 산골 마을에서 살고 있는데 안면마비 때문에 의무실에 와서 치료를 받았다. 아들 둘이 있지만 모두 상해에서 품팔이 노민공을 하고 있다. 세발 소형 트럭을 운전하고 있는데 비가 오면 천장이 없는 트럭이라 올 수가 없었다. 다행히 공동체에 승용차가 있어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치료해 주었다. 이것이야말로 소비녀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였다.

의무실 준비 작업

4월부터 11월 초까지 6개월의 시간이 지나서야 의무실 허가증이 나왔다. 전에는 처방지만 주었는데 지금은 약품들을 구입하여 환자들에게 필요한 약을 줄 수가 있다. 그리고 의무실을 통해서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전할 수 있는 좋은 장소라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다. 의무실 안에서 서로 간의 거리감이 줄어들고 계속해서 만나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 방식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겨드리고 그분의 이끄심에 의해 살아가려고 한다.



05 안면 신경 마비 환자 전기기계 치료
06, 07 의무실 준비 작업



하느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여정

볼리비아 비루비루 탁아소
이 폴 수녀

볼리비아 빠드레호세 탁아소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파괴되어가는 가정과 자연환경을 보살피는 것을 주제로 설정하고 1년마다 두 가지 과제에 중점을 두어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며 평가를 통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탁아소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사회의 네트워크를 통해 이 과제가 확산되어 화목한 가정으로 변화하고, 지구를 살리는 일에 모두 동참하기를 바

라는 마음으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의견을 조정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의 의견을 나누고 실천으로 결정한 사항들은 첫째, 산소 방출을 위해 정원에 나무와 식물 심기 둘째, 지구 변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직접 보여주는 교육을 통해 관심 끌기 셋째 탁아소 벽을 이용하여 그림으로 홍보하기 등의 세 가지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위 세 가지 결정 사안에 대한 올해의 프로젝트는 탁아소 내부가 아닌 외부를 이용한 JPIC 홍보 및 교육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벽에 붙어있는 큰 글씨는 소리 내어 읽으면서 지나가는 모습과 탁아소 위치가 길가에 있는 관계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곳 사람들은 단적으로 옷을 맞추는 것을 좋아하고 장소에 구





분 없이 즐겨 입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따라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여러 곳으로도 다니기 때문에 그 존재만으로도 걸어 다니는 홍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아이들 단체복에 JPIC를 상징하는 그림을 넣어 제작하였고, 두 번째로 주제를 정하여 탁아소 벽에 그림을 그리기로 하였습니다. 업체에 의뢰하려고도 하였으나 거기에 드는 비용이 따르기에 저희가 직접 작업하기로 하였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았지만 모르면 용감하다는 말처럼 과감히 도전하기로 하였습니다. 원하는 색깔이 나오지 않아 시내를 여러 번 오가는 인내심의 시간도 있었고, 개미한테 물리는 탓에 40도가 웃도는 더위임에도 불구하고 장화를 신어야 했기에 웃고는 있지만 후끈 땀이 오르는 발바닥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탁아소 벽의 길이가 긴 관계로 4개의 주제를 정하였는데 1. 빠드레호세 탁아소는 PREKINDER(유치원 전교육단계), 2~4살까지 통합교육을 시키는 교육 기관 2. 탁아소는 교회 소속이며 성가소비녀회에서 운영 3.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우리 모두의 책임이 따른다 4. '5R을 기억하자'로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5R은 Reducir(~을 줄이다), Reparar(수리하다), Reusar(다시 사용), Recuperar(되찾다), Reciclar(재사용)을 말합니다. 2명의 소비녀는 원대하게 JPIC 지향에 따라 밑그림을 시작으로 해서 붓을 잡은 손에 힘을 실었으나 정말로 힘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탁아소 업무를 마치고 남은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야 했기에 꽤 많은 시



간이 필요할 것이라 예상했는데 다행히도 2018년이 지나가기 전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것도 아니고, 때론 너무 힘들어서 “무슨 이득을 보겠다고 이 일을 시작했을까?” 투정도 해 보았지만 우리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있기에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우리는 잠깐이지만 살기 위한 일환으로 늘 피약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지향을 담아 완성된 그 벽화의 이름은 ‘아름다운 낙서’입니다. 낙서라 하면 먼저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는데 공동체 수녀님의 한 마디로 인해 그 개념을 달리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수녀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라고 말은 했지만 “낙서하는 마음으로 할 건데!”라는 수녀님의 경쾌한(?) 한 대답에 “아니! 편하게 하라고는 했지만 낙서라니?” 하는 생각으로 머리를 갸우뚱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조금도 틀려서는 안 되고, 신중하고 정확히 해야 한다는 강압적인(?) 마음이었다면 아마도 이 일을 끝마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낙서’라는 단어가 생각의 확장을 넓혀주었고, 한국에서는 가능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벽에 담은 것은 단지 그림이 아니라 “하나의 의



미구나! 누군가가 무언가를 새긴다는 것, 그린다는 것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탁아소를 오고 가는 사람들도 우리의 깨달음을 알아차리기라도 한 듯 차를 세우고, 발길을 멈추어 “깨 보니또(예쁘다)”하며 응원해주고, 아이들이 “우리 탁아소 이쁘다” 한 마디씩 해주고 지나갈 때 우리의 작은 능력도 크게 봐주는 아이들에게 고마웠고, 무엇보다 저희와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봉헌합니다.

아르민다와 과달루페 성모님

볼리비아 뿌에스또
김 로사리아 수녀

아르민다는 볼리비아에 처음 와서 병원
접수실 근무하던 중에 만난 자매입니다.
51세로 집도 없이 남편과 고3인 딸 하일
과 함께 5~60마리 정도 되는 주인집 소
를 돌보며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주변에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고혈압이 있어 가
끔 혈압을 체크하러 왔는데 근무를 마친
후에는 거의 볼 수 없습니다. 그러던 그녀
가 당뇨와 고혈압 그리고 자궁암으로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바로 며칠 전이었습니다.



01 함께 기도하는 김 에즈라 수녀

2016년 공소 축일(9월 8일) 전 저녁 8
시 전야 미사에 참석하여 ‘내일은 성
모님 생일입니다’라는 신부님 강론을
들었고, 다음날 본 미사가 끝날 무렵
에 커다란 케이크를 가지고 성당 안으
로 들어와서 신자들과 함께 촛불을 켜
며 성모님 축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
다. 그리고 작년 공소 축일에도 여섯
개의 케이크를 주문 제작하여 보내 주
었습니다. 올해는 9월에 있는 총원 연
수 참석하느라 한국에 있어서 직접 보
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역시나 여섯 개의 케이크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02 과달루페 성모님

연수를 마치고 볼리비아에 도착한 이
틀 후, 그녀의 친구인 엘리가 갑자기
찾아와서는 “아르민다가 퇴원해야 하는데 퇴원비가 부족해요. 어떻게 하면 좋
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사연을 알아보니 지난 수요일에 출혈이 심해 목숨
이 위태로운 상황이라 급히 도시 병원으로 가서 응급처치를 받고 위험한 순간
을 넘겼다고 합니다. 지불해야 할 비용이 500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일단 하일
과 만났는데 아버지가 조금 가지고 있는 땅이라도 팔려고 내놓았으나 마땅한
매입자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과 그동안 친척들로부터 도움을 받았기
에 더 이상 빌릴 수도 없는 처지라 하였습니다. 듣고 보니 안타깝지만 한두 폰
도 아니고 그 큰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우선 수중에 가지고
있는 금액을 모아보니 150달러였습니다. 엘리에 의하면 마을 부녀회장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아르민다를 암 전문 병원에 데려가
기 위해 마을 부녀회에서 음식 바자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은 퇴원비
가 우선이라 부녀회장에게 바자회를 통해 얻은 140달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일 미사 후에 신자들이 십시일반 모은 것인 30달러로 모두 285달러가 모였
으나 한참 모자라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하일과 함께 이 집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면사무소 사회사업팀 엘리사벳과 동행하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은 차로 거의 한 시간 정도 소요되는 거리로 중간 도시에 있었습니다. 병실에 도착하니 아르민다는 창백한 얼굴로 저희를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그녀는 거의 7~8년 동안 당뇨와 고혈압으로 고생하고 있었고, 아픈 순간에도 과달루페 성모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 3년 동안 병이 치유될 것이라는 지향을 가지고 성모님께 케이크를 봉헌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것은 거의 100달러 정도 되는 큰 금액입니다. 가난한 과부의 현금처럼 성모님께 의탁하는 마음으로 봉헌해 온 것입니다.

병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간호사가 퇴원비 청구서를 가져왔는데, 380달러!

혹시나 하면서 간호사에게 퇴원비에 대한 절감 여부를 물었더니 이곳은 사회사업과도(대부분 큰 병원에서는 사회사업과에서 서류 심사를 하고 등급을 주어 병원비를 삭감해 주고 있다.) 없고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벳과 저는 말이라도 해보려고 의원장실을 찾아갔습니다. 마침 의원장이 있어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친절했으며 그녀의 상태를 설명해 주면서 거의 말기라서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과 암 전문 병원에 간다 하여도 온갖 치료로 몸이 더 쇠진 될 우려가 있으니 퇴원하여 집에서 잘 쉬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말을 진지하게 경청한 후 엘리사벳은 아르민다의 가정 형편을 소상히 설명하면서 퇴원비에 대한 사정을 알리자 잠시 나가서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잠시 후 여직원이 퇴원비 계산서를 가지고 왔는데 저희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273달러인 것입니다.

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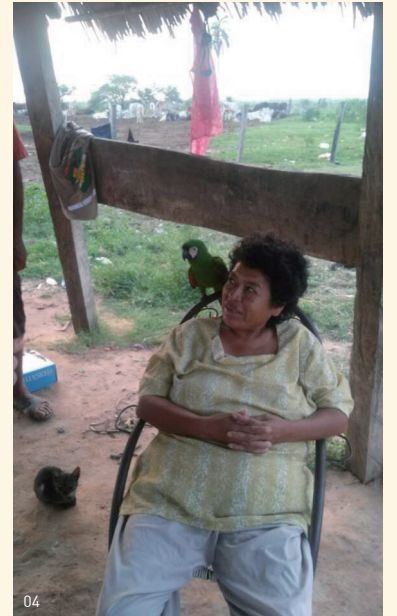
정말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기쁨을 생각하면 눈물이



03 인술리나 앞 풀이기

납니다. 간호사도 이런 일이 없었으며 놀라워하였습니다. 저희는 성모님이 도와주셨다는 믿음으로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아르민다는 자신이 말기 암이라는 사실을 아직 모릅니다. 이를 후 아침에 그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긴 의자에 앉아 어깨에 앵무새를 친구 삼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에는 나무 장작을 때어 무언가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술리나'라는 잎이라고 합니다. 잎을 한두 개 넣고 끓여 마시면 당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7년 전에 집에 불이 났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가스가 열려 있는 줄 모르고 성냥불을 그었더니 집에 불이 붙어 시커멓게 다 타고 없어졌는데 작은 과달루페 성모상만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왜 성모신심을 갖게 되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04 아르민다

여러 가지 병으로 7개나 되는 약을 복용하고 있는 아르민다!

하지만 타는 불속에서 살아남으신 성모님처럼 자신도 언젠가는 일어나 걸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평화롭게 미소 짓는 그녀를 뒤로하고 돌아오는 저희의 발길도 그리 무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오늘도 수녀원 감실 옆에 모셔진 과달루페 성모님을 바라보며 아르민다가 생이 다하는 마지막까지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길 위에서 시작하고, 그 길을 돌아오는 것으로

볼리비아 산홀리안
정 호영베드로 수녀

오랜 비행으로 볼리비아 공항에 내렸을 때의 첫 느낌은 “드디어 땅을 밟는구나!”라는 기쁨이었습니다. 습하고 더운 공기마저도 이 기쁨 속에 포함되어 좋은 느낌으로 다가왔으니까요. 수녀님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아, 이제부터 선교라는 것을 시작하는구나!” 마음만은 너무 들뜨고 희망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출발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30시간을 지나야 올 수 있는 지구 반대편에서의 삶이 이런 행복함과 함께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싶었습니다.

다음날부터 시작된 기다림의 시간들 속에서 첫날의 이 기쁨은 앞으로 제가 받아들여야 하는 인내함에 있어 그리 힘들지 않게 해주는 활력소와 같은 역할로 다가올 것입니다. ‘빨리빨리’에 깊게 스며들어 있던 우리에게 선교사로서의 적응은 기다림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신분증 발급을 위한 서류 접수 담당자를 기다리는 것으로





필두로 해서 모든 과정이 기다림으로 시작하고 이렇게 끝자락이 보일 때까지 또 기다리게 됩니다.

지역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사소한 것, 몸짓 하나도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생소하고 뜻밖이지만 또한 신비롭기도 합니다. 언어의 표현과 몸의 언어가 다르다는 것을 보면서 마치 갓난아기가 되어 새로운 환경 속에서 하나씩 체험하면서 성장하는 느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 산홀리안에서의 사도직은 길 위에서 시작하고, 그 길을 돌아오는 것으로 마치게 됩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오토바이 택시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느낌은 참으로 좋았습니다. 대부분의 집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고 단층이기에 바로 머리 위에서 넓게 펼쳐진 하늘은 마치 바다를 보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시원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뿔뿔이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이곳에는 3명의 소임자가 있으며, 평일에 2명은 방문 사도직을 하고 1명은 어린이집에 출근합니다. 한국과는 다르게 본당과는 떨어져 지내면서 주일에는 2명이 주일학교 일을 도와주고 나머지 1명은 제의실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본당의 단체를 맡아서 함께 동반하던지 아니면 첫 영성체나 견진 봉사자들과 동반한다든지... 저희가 도와주고 있는 본당은 뉴플로 데 차베스 교구 소속으로 수도자와 사제의 수가 많지 않으며 서로 간의 친교는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문 사도직은 본당에서 추천받은 가난한 집이나 자연스럽게 거리에서 만난 아이들을 통하기도 하고 더러는 상황에 따라 방문을 하게 되는데 종종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혼자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이 처음 보는 사람들에 대해 관대한 편이지만 마음속 깊은 관계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집들은 대문이나 담이 없어서 안이 훤히 들여다보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들어가서 말을 걸거나 길을 물어보면 친절하게 대답해 주고 환영해 줍니다.

아이들은 쉽게 접해볼 수 없는 동양 수녀들이 말을 거는 것에 신기해하고 쑥스러워하면서도 만나게 되면 인사를 잘 받아줍니다. 먼저 소임 했던 수녀님들의 영향도 있겠지만 어디든 지나가면 “에르마나(수녀님)” 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아이들은 우리가 대답을 할 때까지 계속해서 부르고, 달려와서 포옹하거나 악수를 청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그들과 포옹을 하고 나면 하얀 머릿수건에 손자국이 남아있거나 수도복에는 콧물이 선명하게 묻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순수함과 우리를 향한 마음이 보이는 증거가 아닐런지요? 그래서 더럽다기보다는 정겨움으로 다가옵니다.

이곳에 지내면서 불편한 것 중의 하나는 길 포장이 잘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요즘 들어 큰 길은 조금씩 포장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흙길이라 비가 오면 진흙탕이 되고 마르면 딱딱해지는 땅이라 길에 돌을 깔아 놓게 되는데 처음에는 발이 부르튼고, 발바닥도 아프고, 피곤도 빨리 오고... 그런데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되어버린 아이들은 맨발로도 잘 걸어 다니고 뛰어다니기까지 합니다. 언젠가는 저도 뛰어다닐 수 있겠지요?



01 연약식

대부분의 학교는 초등학교(6년)과 중·고등학교(6년)이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져 있어 반나절만 수업을 합니다. 오전은 중·고등학교, 오후엔 초등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수업이 끝나면 집에 와서 집안 일을 하거나 숙제를 하고 집 마당에서 놀거나 길에서 뛰어다니면서 지냅니다. 학원이나 방가 후 프로그램 등은 따로 없기에 한국 학생들은 꿈도 꾸지 못할 만큼 시간적 여유가 많습니다.

우리가 방문하는 지역의 초등학생들은

대부분 오후에 학교에 가서 오전에 숙제를 하거나 집안일을 돕고, 중·고등학생들은 오전 7시에 가서 12시쯤 마치고 집에 오면 동생들을 돌보거나 장사하는 부모님을 돕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아이들이 장사를 하고, 청소년들이 시장에서 판매원으로 아르바이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나마 약간의 여유가 있는 아이들은 스마트폰으로 페이스 북을 하거나 게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에게 게임 방이나 펠스트푸드점, 아이스크림 가게에서의 만남이나 놀이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한 가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웃집에 방문 나갔다가 소개로 만난 가정으로 우리는 ‘베니그나네 식구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엄마 이름이 베니그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중풍 환자로 4~5년 전쯤 남편이 집을 나간 후 충격으로 쓰러져서 혼자 걷는 것도, 손을 사용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불편한 상태입니다. 현재 시집 간 큰 딸과 당시 큰 아들(8세), 작은 아들(7세), 막내 딸(5세)이 있었으며, 집은 나무 움막 한 채로 방 한 칸에 침대 한 개와 불을 피울 수 있는 곳이 함께 들어가 있고 비가 오면 집 마당은 작은 호수가 되어버리기 일쑤입니다. 아이들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라서 우리가 알아듣기에도 어려운 지경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방문하고, 아이

들을 씻겨주고, 가끔 쌀이나 채소를 가져다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나마도 비가 오면 길 상태가 좋지 않아 방문하는 것도 어렵고, 비가 그친 뒤에 방문하면 온 집안이 젖어 있습니다. 마당은 물이 고여 어느새 모기들의 천국으로 변해버립니다. 이곳은 하수도나 정화조 시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비가 와서 물이 고이면 금방 녹조가 끼어 썩는 냄새가 진동하지만 시간이 지나 물이 빠지기를 바라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가장이 부재한 가정이라 기본적인 먹을거리에서부터 여러모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는데, 다행히 좋은 이웃들이 도와주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일거리를 주기도 합니다. 큰 아들은 여덟 살부터 엄마를 목욕시키고, 집안일을 하고, 동생들을 돌보며 주변에서 일거리가 주어지면 그 일도 큰 아들의 몫이 되



지만 어린 가장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염소나 양, 소 같은 동물을 돌보는 것이 대부분이며 그 일을 마치면 음식이나 고기, 과일 채소 등을 얻어와서 생계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방문하던 중에 시청과 연계해서 집을 지어주는 프로그램에 연결이 되었습니다. 시청에서 자재와 인건비를 마련해 주었고 이것을 맡은 직원들이 이 집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되어 가구와 주방기기 등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4~5년이 지나자 이제 두 아들이 가정의 역할을 하게 되었고, 엄마를 돌보는 일은 딸의 몫이 되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마당에 흙을 돋우어 지대를 높였기 때문에 비가 와도 물이 고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방 두 칸에 목욕실, 주방이 따로 있는 곳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머니의 중풍은 나아지지 않고, 어린 아이들이 감당하기에 버거운 문제들이 산재하였습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필요한 학용품 마련하는 것도 쉽진 않고….



02 성체거동 준비

이 가족과의 만남은 상생하는 관계입니다. 아이들은 그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도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는 삶을 배워가고, 우리들은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해외 선교사로서의 삶을 배우게 됩니다. 기업의 대표는 아니라도 이들에게 우리는 갑의 입장이라는 상황에서의 삶을 늘 돌아보게 합니다. 이제 12~13살 된 아이들이 가장 소망하는 것은 자전거를 갖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닌 친구들과 함께 축구하고 자전거를 타면서 실컷 달려보고 싶고, 10살인 딸은 예쁜 옷에 구두를 신고 큰 인형을 가지고 놀면서 친구에게도 자랑하고 싶은 그런 아이들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이 아이들의 꿈을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베니그나네 식구들과 함께 만나는 과정을 통해 하느님께서 주신 사랑과 설립자 신부님의 영성이 단지 그들과 함께 존재하는 삶 속에서 씨 뿌리고 키워나가며 열매 맺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소비녀로서의 삶을 새롭새록 되새기는 시간들입니다.



01

01 마을 방문 진료

온전히 내어드리는 순간

캄보디아 짬나움
이 그레이스 수녀

코헬서 3장에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말씀이 있다. 때가 되면 들리고, 때가 되면 보이고, 때가 되면 알게 되고, 때가 되면 만나고, 때가 되면 이별을 하게 되고,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때를 알아차리고 기다린다는 것이 그다지 녹록하지가 않다. 때를 아는 지혜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체험과 기도 안에서 그것을 알아차리는 감수성을 키워가면서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4년 전, 이상하리만큼 두려움 없이 캄보디아에 첫 발을 디디고 생소한 언어를 익히면서 “과연 듣고, 읽고, 쓸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막막함에 부딪히며 시간이 흘렀고 지금은 방문을 다니면서 아이들



02 가정 방문

을 수 있고 현지인들과 일상 대화를 하면서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성경 말씀이 저절로 되뇌여지곤 한다. 물론 다 알아듣고,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상 대화 가 될 수 있음도 은총의 선물이기에 감사 드린다. 그렇다고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만큼 언어가 잘 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안타까운 상황을 접할 때는 좀 더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으면 구체적인 도움과 격려를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바람이 있지만 마음처럼 안 되는 부분을 어찌하랴. 단지 희망사항이라는 것과 이 또한 때를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한 거기까지이고 나머지는 주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 주심을 믿고 또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다. 순간순간의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은총의 순간임을... 매달리다 보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지혜와 위로도 주시고, 조급함을 평온함으로 바꿔주고 계심은 마음의 움직임

통해 체험하게 된다. 지금은 이들의 아픔과 기쁨에 동참하며, 함께 울고, 아파하고, 기뻐해 줄 수 있는 즉, 희로애락을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한다. 문화와 기후가 많이 다른 해외 선교지에서 지낸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러기에 주어지는 은총의 선물이 많음을 느끼며 그중 가장 큰 선물은 주님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자주 접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곳은 교사들이 학생들에 대한 관심보다는 돈벌이 수단으로 가르치고, 과외와 사교육이 만연하고 있으며, 의사 면허를 살수도 있고, 약사 자격이 없이도 약국을 개업하고, 하물며 경찰이 마약을 판매하고 있어서 마약을 구매한 사람에 대한 신원을 정확히 알고 있어 돈이 필요할 때면 이들을 잡아서 감옥으로 보낸 뒤 가족에게 돈을 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볼 때마다 어둠이 짙어 희망의 빛이 멀게만 느껴져 무겁고 착잡한 마음이다.

1975년부터 1979년까지 폴 포트가 주도한 크레르루즈군이 정권을 잡으면서 인구의 3분의 1인 610만 명을 학살하였고, 특히 지식층 모두가 이때 처형을 당했다고 한다. 40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현 정권은 국민들이 명석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사리사욕에만 눈이 어두워 있기에 교육계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가난은 대물림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공정과 정의보다는 불의가 자리 잡고 있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면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도움을 주어야 할지 막막하면 할수록 주님께 의탁하게 되고 온전히 맡기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으니 자연스럽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공간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순간을 느끼게 되면서 오히려 이 무력감은 은총의 순간이 아닐 수 없다.

방문 간호를 다니다 보면 뜨거운 들로 불리내어 가난하고 아픈 이들을 통해 사랑을 고백하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 끼니가



03 동네 아이들이 성당에 와서 놀다가 한 것



04 성탄 자정미사 후 교우 아이들

없어도 해맑은 아이들의 표정과 섯별 같은 눈망을 속에서 방문해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하며 포옹을 하고, 뭐 하나라도 주고 싶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안타까워하는 형제자매들의 이슬 맺힌 눈망울과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부족하나마 간호를 받으면서 조금씩 건강이 회복되는 모습 속에서 비록 뜨거운 태양을 머리에 이고 다니지만 그들의 삶 속에 점점 동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검게 그을린 얼굴을 보면서 이제 캄보디아인이 다 되었다며 농담을 하기도 하고 간혹 처음 만나는 사람은 캄보디아 수녀로 착각하기도 한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면 그냥 기분은 좋고 기쁜 것은 아마도 이젠 선교사로서의 자격이 조금 생겼기에 드는 느낌이 아닐까 싶다.

선교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이들과 하나 되어 가는 여정에 서있는 것 같다. 열두 제자들이 주님이 떠난 뒤에야 그리워하고 참 사랑을 느꼈듯이 언젠가 내가 이곳을 떠났을 때 주님의 사람으로 함께 살았던 조그만 소비녀가 보여준 사랑을 통해 이들이 주님을 느

끼고, 그 사랑이 이웃을 향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내가 서있는 땅, 캄보디아가 언젠가는 불의의 자리에 공정과 정의가 우뚝 서게 되어 하느님이 아름답게 만드셨던 정의와 평화의 나라가 되기를 희망하며 그때가 하루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총에 힘입은 오늘처럼 내일도 절박한 이들 속으로 한 걸음씩 내디딜 것이다. 절박한 이들을 향해 내딛는 한 걸음은 성 신부님이 걸어가셨고, 선·후배 수녀님들이 걸었고, 걸어가고 있는 우리 수도회의 영성인 강생의 발걸음이 뒀을 의식하면서...



05 찼나움 성당

선교사의 가방

필리핀 빠라나케
이 크리스틴 수녀

그들에게 이르셨다. “길을 떠날 때에 아무 것도 가져가지 마라. 지팡이도 여행 보따리도 빵도 돈도 여벌옷도 지니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루카 9,3-4)

선교지로 떠나는, 그것도 해외로 파견 받은 선교사들에게 이 복음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다. 특히 나에게는 그러하였다. 필리핀에 와서 보니 필요한 것이 있어도 어디서 파는지 모르고 특히 언어가 안 되니 더더욱 난처한 경우가 있었다. 그러면서 “서울에서는 어디에 가면 살 수 있는데...”라는 생각과 설립자 성 신부님도 한국에 입국하실 때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가져오고 ‘필요한 물건이 있는데 한국에 오는 인편으로 보내 달라’는 서한집의 글을 읽었기 때문이다. 해외 성지 순례 외에 한국을 떠나 본 적이 없는 입장에서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천



하는 해야 할지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생긴 것이다.

원고를 부탁받을 즈음은 미처 가져오지 못한 짐을 총원에서 주관하는 해외 선교 연수에 참석한 수녀님들에게 부탁을 청했던 때이다. 그러면서 “선교사의 가방을 무

엇을 놓어야 할까?”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다. 원래 일을 하기 전에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는 성향인데 이번 해외 선교사로 파견 받으면서 평상시와는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같은 시기에 해외 선교 준비하는 수녀님들과 함께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하면서 출국 직전까지 짐을 풀었다 싸기를 반복하는 가운데 준비했던 것보다는 정말로 필요한 최소한의 가방에 채우게 되었다. 그동안 삶의 자국이 남아 있는 물품들이 결코 비싸거나

값어치가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나의 삶이 담겨 있고, 추억이 있고, 사랑하는 이들 마음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정리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렇게 성령의 바람은 나를 다그치셨다. 이곳에서 4개월 정도의 시간을 지내면서 복음서의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았다.

지팡이, 여행 보따리, 빵, 돈, 여벌옷이 낯선 곳에서는 아주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해외 선교지인 이곳에서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루카복음 9장 4절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었다. 언어, 환경, 음식, 문화 등 모든 것이 어설픈 이곳에서는 현지인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총원에 머무는 동안 2박 3일의 선교 피정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피정을 지도한 마필운 신부님의 “수녀님 한국에 살 때에는 이 나라 백성에게 의지하고, 그 나라 가서는 그 나라 백성에게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라고 한 말씀에 공감을 하게 되었다.

익숙한 모든 것을 떠난다는 것은 작은 죽음이자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다. 복음서에 “밀알 하나가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요한 12,24)는 말씀처럼 내가 살아온 환경에서, 사람들에게서, 소임에서 떠나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고통이 수반되는데 그 고통을 ‘작은 죽음’이라고 이름 붙여본다. 내가 지니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면 할수록 새로운 곳에 대한 적응이 더디게 될 것이다. 사람에게 생존의 욕구가 있으므로 본능으로 새로운 곳의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또한 더 나아가 사람들의 성향을 아는 만큼 그만큼 빨리 적응하게 될 것이다. 일례로 식사 때 반찬 하나가 전부인 낯선 광경에 처음에는 많

이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자연스럽게 적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특히 언어는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으로 그나마 영어는 학교 교육을 통해 배워온 터이지만 일상적인 회화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현재 학원을 다니면서 하나씩 배워가고 있는데, 타갈로그어도 배워야하고….

처음에는 사람들을 대할 때 당연하게 나의 시선과 한국 사람의 시선으로 보고 판단하였고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가난한 모습은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들이 이제는 조금씩 변화되어가고 또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들에게는 미소가 있고, 나뭇의 행복이 있고, 이웃에 대한 너그러움이 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이웃의 행동에 대한 것으로 어느 주일미사에 참석했을 때의 일이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 형제님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손을 들었다가 내리고, 옆을 보거나 일어서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누구 하나 제지하지 않고, 시선도 주지 않는데 미사가 끝날 때까지 나의 시선은 오로지 그에게 머물러 있게 되었다. 또한 성당에 유아 방이 따로 없어 아이들과 함께 미사를 하는데 그들이 떠들어도 자연스럽게 대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성당과 성체조배실 어디서나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고 신부님과 수녀님

01 학원 선생님과 학생들





02 함께 공부하는 페루 수녀님

을 보면 바로 축복을 청하는 모습은 그들의 눈에 낯선 사람인 나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금까지 나의 성격이나 주입된 교육을 받아온 내게 있어 이런 행동들은 도전으로 다가왔다. 선교사의 가방은 익숙한 모든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새로운 곳에 대한 두려움과 설렘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두려움은 하느님에 대한 신뢰와 선교지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대한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지나간 것에 연연해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과 사람들 속에서 생활하기를 바라시는 하느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는 것이 짧은 시간 동안에도 많은 천사들을 보내주시며 함께 하셨던 것이다. 그들의 행동이 크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인사와 작

은 미소에서 나를 돌보시는 하느님을 만날 수 있었다. 사람들이 “수녀님 언제까지 여기서 계실 건가요?”라고 물으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그때까지”라고 대답한다. 그리고 미사 중에는 “이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이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

오랫동안 소임 했던 병원에서 떠나 해외 선교사로서 삶은 도전이면서 또한 은총의 시간이 되리라는 믿음이 있다. 끊임없이 하느님과 대화하고, 하느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선교지로 떠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도 근본적으로 신앙적인 일입니다. 선교사는 강한 인간이어야 하고 성교회의 제단 앞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일하며 고통받고 기도하며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 신부님의 말씀을 다시금 되새겨 본다.

밖으로 나가는 교회

아르헨티나 한인성당
차 클레멘스 수녀

아르헨티나에 온지 1년 6개월이 되어 갑니다. 첫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겨자씨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앗 중에 아주 작은 씨앗이지만 큰 나무로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이 계속 자라나기 위해서는 많은 비바람을 맞고 견디어 온 시간들이 있습니다. 한인 성당 공동체는 1970년에 13세대의 작은 신앙공동체였는데 지금은 50년을 두 해 앞둔 큰 나무로 우뚝 섰습니다. 이 신앙 공동체도 휘몰



아치는 바람에 가지가 잘려나가는 아픔과 그 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모든 것을 견디면서 이 작은 겨자씨는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80여 명의 초등부 어린이들, 80여 명의 중·고등부 청소년들, 청년들, 그리고 많은 단체들,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수고와 희생으로 자라난 큰 나무에 새들이 깃들인 아름다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요한복음 1,14절의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신 것처럼 저도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재아한국순교성인 성당 공동체에 천막을 쳤습니다. 이민자들의 삶의 한 가운데 저를 파견하신 것은 나름대로 품으신 뜻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각자 살아온 세월만큼 크고 작게 써 온 슬한 삶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들 가운데 천막을 치고, 저의 마음에 품었습니다. 하느님의 생명나무에 물을 주듯이 더 많은 새들이 깃드는 본당 공동체를 꿈꾸며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당 안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를 필요로 하는 이웃과 연대하고자 거리급식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기적의 메달’ (Medalla Milagrosa) 성당으로부터 거리급식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고 기쁘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당은 남미에서 설립된 빈첸시오 수도회가 학교와 본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5명의 사제가 공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3대의 미사가 있고 주일에는 5대의 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을 위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성당의 원주민 봉사자들과 세르히오 본당 신부님이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까라보보 거리를 다니며 도시락을 나누어주고 음료수와 빵도 더불어 제공합니다. 이 거리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동네라고들 하는데 거리를 다니다가 만나게 된 한인 성당 신자는 “수녀님, 이 밤에 여기에서 무슨 일이나?”라며 놀라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상 다녀보니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이 지역이 실제로 볼리비아에서 온 사람들이 살고 있는 빈민촌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고 주로 마약범들이 숨어 살고 있는 곳이라 경찰도 무서워서 빈민촌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우범 지역입니다.

거리급식 대상자들은 대부분 마약을 하는 젊은이들이고 여성들도 있는데 그들 중에는 임신한 여성도 있습니다. 겨울에는 거리에서 노숙을 하기 때문에 따뜻한 파스타, 리조또와 옷가지, 신발을 나누어줍니다. 그리고 추위에 견딜 수 있도록 열량이 높은 초콜릿을 나누어 줍니다. 원주민 봉사자들은 오랫동안 매일 급식을 해서 모두의 이름을 기억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그들이 있을 만한 장소를 찾아서 “크리스티앙”, “세르히오”, “앙헬라”...하고 부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있다는 신호를 하거나 뛰어오기도 합니다. 이들 중에는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는 여성도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참여할 수 없어서 1주일에 1회 함께 하고 있습니다. 거리를 돌면서 도시락을 주기도 하고, 길모퉁이에서 밥을 퍼 주는 팀과 함께 하기도 합니다. 놀라운 것은 모두 젊은 청년들이라는 것과 그리고 주로 우루과이, 파라과이, 볼리비아 등 가까운 나라에서 온 젊은이들입니다. 가끔 무전여행을 하는 부부도 식사를 합니다. 거리급식 외에 메다샤 성당 식당에서도 급식을 합니다. 대상자들은 노인들, 가족들, 환자들로 가족들은 대부분 볼리비아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급식을 하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들을 대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한 번은 모퉁이에서 밥을 퍼 주는데 원주민 봉사자가 다른 이들도 먹어야 한다면 한 그릇 밖에 주지 않자 이들은 배가 고파서 더 달라고 합니다. 어느 날 원주민 봉사자가 도시락이 부족하여 가지러 간 사이에 혼자 급식을 하고 있었는데 “수녀님, 밥 좀 더 주세요?”하며 여러 명이 청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요구대로 밥을 주었습니다. 어떤 젊은이는 3번이나 달라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요구대로 퍼 주고 나니 밥이 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오고 있었고,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는데 마침 거리 급식 나간 팀들이 일찍 급식을 끝내고 남은 도시락을 들고 모퉁이로 왔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요! 결국 나중에 도착한 이들도 식사를 할 수 있었고, 원하는 대로 주고도 부족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었습니다. 참으로 빵의 기적을 목상하게 되었습니다.

거리급식 대상자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삶이지만 젊은이들이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약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밤늦은 시간에는 마약을 거리에서 판매합니다. 주로 한인 성당 주차장 문 건너편에 밤 12시쯤 되면 모이기 시작합니다. 30여 분 정도 시끄럽다가 이내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한두 명은 그 자리에서 상자나 주워온 매트리스를 깔고 노숙을 합니다. 오히려 성당 문을 든든히 지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문을 드나들 때나 거리에서 만나면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이들을 볼 때마다 답답한 마음이 들어 좀 더 건설적인 방법은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하지만 해결책은 없습니다. 이들을 수용하는 시설도 있지만 자유를 좋아하기 때문에 시설보다는 거리 노숙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친구 같이 만나면 반갑고 보이지 않으면 궁금해지면서 그들을 저의 기도 안으로 초대하는 것이 일상화 되었습니다.

한인 성당은 너무 울안에 갇혀서 우리끼리 만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끼리 문화에서 벗어나고자 지역 나눔 실천으로 빈첸시오회에서는 노숙인들을 돕기 위한 방법으로 하루 급식을 제안하였고 청년들과 함께 나누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자매님들이 음식을 만들기로 정하고, 이제는 메다샤 성당과 의논하여 실행을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인 성당은 주일마다 점심 식사를 하는데 신자들만이 아니라 지역에 필요한 이웃과 함께 나누자고 제안한 것이 이루어져서 감사로운 마음입니다.

작은 일이지만 이렇게 지역과 연대하면서 밖으로 나가는 교회가 되고자 하나씩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기만 하면 그다음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시니 오늘도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후원



선교 수녀들이여!

하느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참으로 중요하고 요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사명도 실로 중요합니다.

선교 수녀들이여!

더욱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로 가십시오.

가서 가난하게 살고, 가난한 이들과 함께 살며,

가난한 교회가 되십시오.(설립자 신부)

설립자 성 신부의 말씀에 따라 성가소비녀들은

국내에서는 물론 아르헨티나, 중국, 볼리비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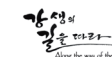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에 선교사로 파견되어

가난한 교회가 되어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후원 계좌 국민은행 036101-04-030207 재)성가소비녀회

TEL. 02)940-5815, 5816

※ 입금 후 반드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을 생각해서 재생용지로 인쇄합니다.

해외 선교 지역

중국 형주 상록촌

434030 中国 湖北省 荆州市 荆州区 八岭山镇
八岭山麻风康复中心 李香兰修女 收

중국 분양

032203 中國 山西省 汾陽市
汾阳三皇庙巷 39号 天教堂

중국 연길호스피스병원

133000 吉林省 延边朝鲜族自治州 延吉市
依兰镇 兴安村 延边宁养医院

캄보디아 바탐방

Pet Yiey Chee Catholic Compound
Rumcheck 1 Village, Rattanak Commune
Battambang District, Battambng City P.O. Box 330
Kingdom of Cambodia

볼리비아(뿌에스또, 산 홀리안, 비루비루 탁아소)

Las Pequeñas Siervas de la Sagrada Familia
Casilla 25, Santa Cruz. Bolivia

필리핀 빠라나게

3822-C Mabini Dongalo, Parañaque City
Metro Manila, Philippines

아르헨티나 한인성당

Parroquia de los Santos Mártires Coreanos
Thorne 1261 1406 Capital Federal BS. AS. Argentina

아르헨티나 차코 아비아 페라이 공소

Capilla N.Sara del Rosario Casa de las hermanas
3706 Avia Terai Chaco, Argentina

아르헨티나 알바레스 병원

Aranguren 2701(Hosp. Alvarez)1406
Capital Federal BS. AS. Argentina

아르헨티나 에바 페론 병원

Capilla del Hospital Eva Peron Nuestra Senora de Lujan
Balbin (101) 3150
B1650 NBN San Martin
BS. AS. Argentina

베트남 빈중

7, duong lo so 2- khu TDC Phu Hoa,
Khu 7, Phuong Phu Hoa,
thi xa Thu Dau Mot,
Tinh Binh Duong, Vietnam